

# 1-10 학급신문

서재운 총괄, 정재운 편집, 김서운 외 6명 기사 작성

## 1-10반 5월달 소식



1학년 10반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감동적인 스승의날 이벤트

이필립 기자

하나하나 정성껏 쌓고 꾸민 초코파이 케이크 위에는, 아이들이 고른 알록달록한 메모지에 적힌 따뜻한 말들이 롤링페이퍼로 이어졌다.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가 즐거워요!” 같은 진심 어린 메시지들이 케이크보다 더 큰 감동을 주었다.

“풍선이랑 촛불까지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조심스레 속마음을 내비친 아이도 있었지만, 준비한 모든 순간이 선생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기에 아쉬움보단 뿌듯함이 더 컸다.

드디어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은 미리 약속한 대로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를 외치며 환하게 웃었다. 예상치 못한 깜짝 이벤트에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교실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았다. 직접 손으로 만들고,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은 그 무엇보다 진실됐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1학년 10반 아이들은 스승의 날을 맞아, 가장 소중한 방식으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 15분의 기적

김규아 기자

5월 22일, 평범한 하루가 갑작스러운 시험으로 뒤바뀌었다. 가정 시간, 선생님은 72페이지 내용을 15분 안에 외우고 무작위 질문에 답하라고 하셨다. 틀리면 수행평가 점수에서 1점이 감점되기에 모두 긴장했다. 짧은 준비 시간 후, 학생들은 차례로 질문을 받기 시작했고 하나둘 정답을 맞혀갔다. 마지막 순서였던 들이까지 완벽하게 정답을 말하자, 10반은 감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최초의 반이 되었다. 모두의 집중력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값진 순간이었다.

## 수련회 장기자랑, 치열한 오디션 예고!

박우민 기자

다음 주 월요일, 뮤지컬실에서 학생들의 수련회 장기자랑 팀 선발전이 열린다. 현재 지원한 팀은 약 30팀 정도이고, 15명 정도가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10반에서는 정재운 팀, 신동우 팀, 정연재 팀, 그리고 김규아 팀 등 많은 참가자들이 장기자랑에 지원하여 큰 용기를 보였다. 오디션은 점심시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디션에서 선발된 팀들은 수련회에서 자신들의 묘기를 맘껏 펼칠 기회를 얻게 된다.

## 이번 달의 명언

“모두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려 하지 않죠. 저는 그 말대로 살아갑니다. 열심히 갈고닦아야, 나중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법이니까요. 결국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이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다면 언젠가는 그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게 1년 안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의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Michael Hart

# 학교생활

## 우리에게 다시 닥친 수행평가 지옥 ver. 2

### - 손정원 기자

5월이 되면서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은 벌써 수련회에 가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건 설렘이 아니라, 또 한 번 찾아온 **\*\*수행평가 지옥 ver.2\*\***였습니다.

특히 다음 주 금요일, **5월 30일**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지도 모릅니다.

2교시엔 영어, 4교시엔 사회 수행평가까지... 벌써부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수학, 영어, 도덕 등 설 틈 없는 수행 러시를 겪은 터라, 겨우 끝났다고 안도하던 차에 또 시작이라니요.

이쯤 되면 차라리 **\*\*“우린 중간·기말고사가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번 수행평가들은 하나같이 **수련회 직전과 직후에 몰려 있습니다.**

가기 전에 수련회를 즐기기 위한 마지막 관문 같고, 다녀와서는 정신 차리라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채찍(?)\*\***처럼 느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하필 왜 지금이야?”,  
“이렇게까지 몰아서 해야 해?”  
라는 푸념이 끊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엔 아직 **수련회라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수행평가만 잘 버텨낸다면... 우린 드디어 자유입니다!  
(적어도 **수행 지옥 ver.3** 이 오기 전까진 말이예요.) 그날까지 모두 힘내서 좋은 성과 이루길 바랍니다. 수행아, 제발... 이제는 우리 좀 놔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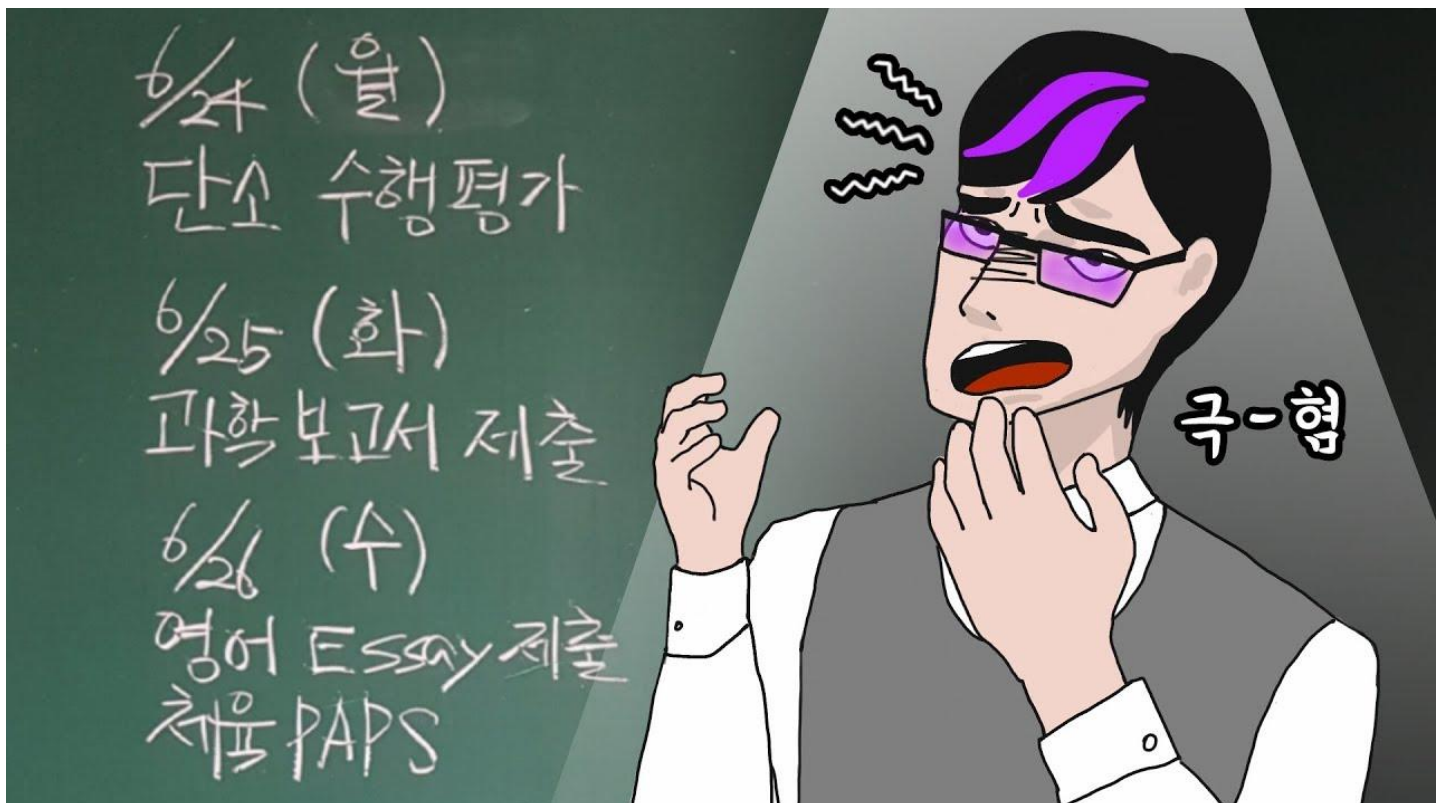


Photo Description: 사회수행평가 공지

## 학생들에게 찾아온 황금연휴!

### - 이하나 기자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며 길고 기다리던 **황금연휴**가 찾아왔다. 이 뜻밖의 선물 같은 연휴 덕분에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오랜만에 여유와 휴식을 누릴 수 있었다.

연휴 동안 학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어떤 친구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나들이를 다녀오고, 또 어떤 친구는 늦잠을 실향 자며 평소 쌓였던 피로를 풀었다. 가족들과의 외출이나 여행, 집에서의 조용한 휴식 등, 연휴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휴 덕분에 다시 학교 갈 힘이 생겼어요!”라며 밝게 웃는 학생들도 많았다.

선생님들 역시 연휴를 반기셨다. 그동안 쌓인 업무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거나 조용히 힐링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 삶에 다시금 **의욕과 활력**을 선물해준 황금연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다음 연휴를 기다리며 힘차게 살아가 보자!



# 전략의 시대, 다시 열리다

-서재운 기자

체스는 고대의 전쟁을 축소한 듯한 전략 게임으로, 서양의 장기라 불릴 만큼 깊은 사고와 치밀한 수싸움이 요구되는 경기다. 흑과 백, 각 16개의 말들이 세로 8줄, 가로 8줄의 정교하게 구획된 전장 위에서 격돌하며, 궁극적으로는 상대의 왕을 사로잡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자가 승리한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이 게임은, 우리 반 1-10에게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새로운 문화였다.

개학 후 3주쯤이 지난 어느 날, 김하랑 학생이 체스판을 반에 가져오며 조용히 불을 붙인 체스 열풍은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이윽고 '체스메이트'라 불리는 자발적 동아리가 형성되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은 전장으로 변해갔다. 때론 지나친 열정이 오해를 낳기도 했다. 승부의 열기에 휘말려 튀어나온 과격한 언행이 아이들 사이에 불편함을 만들었고, 마침내 선생님의 제재와 함께 '체스메이트'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던 중, 한 학생에게 사용된 표현의 수위가 도를 넘어서며 사건은 결정적 전환점을 맞는다. 체스는 1-10에서 잠정적으로 금지되었고, 조유찬 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체스메이트는 장례식 아닌 장례식을 치르며 체스의 몰락을 받아들여야 했다. 게임판은 치워지고, 말들은 다시 상자 속에 갇혔다. 교실은 조용해졌지만, 어딘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이 감돌았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며칠 후, 이필립 학생이 선생님께 조심스레 체스 부활을 요청했고, 마침내 허가가 떨어졌다. 그렇게,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불씨가 피어오르듯 체스의 시대는 귀환했고, 우리는 또다시 검은 말과 흰 말이 춤추는 흥미로운 전장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Photo Description: 체스메이트(ChessMate) 로고

## 1학년 10반의 축구 연승행진

1-10의 남다른 축구실력과 그에 따른 연승행진, 언제까지 이어질까?

-서재운 기자

최근 체육시간에 축구를 배우며 슈트, 패스, 트래핑, 드리블과 같은 기본기를 훈련하고 다른 반과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1-10반도 축구 경기를 하였는데요, 첫 경기 상대는 4반! 일부 학우들 사이에서 최강이라고 불리는 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0반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남자 경기에서 서재운 학생이 골을 넣으며

1대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경기부터 승리를 맞은 10반은 이어진 3반과의 경기에서도 여자경기에서 최해나의 선제골, 남자 경기에서는 조예준의 환상적인 코너킥 골에 이어 서재운과 김유담의 드리블 솔로골을 터뜨리며 4대0이라는 성적으로 3반을 격파하였습니다.

피구와는 달리 축구에서는 파죽지세로 이어가고 있는 10반, 언제까지 연승행진을 이어나갈까요?



Photo Description: Soccer Ball



## 학생 의견 없는 '교복데이'에 불만 속출

-신동우 기자

서운중학교 학생회가 기획한 '교복데이'와 '사복데이'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시행된 교복데이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내외 모두 너무 더운데, 생활복이 아닌 두꺼운 교복을 입으라고 하니 숨이 막힌다”**

-OOO학생

교복데이'는 말 그대로 교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날이다. 특이사항이나 별도의 허가 없이 교복을 입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학생들이 두꺼운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학생은 “실내외 모두 너무 더운데, 생활복이 아닌 두꺼운 교복을 입으라고 하니 숨이 막힌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4더 큰 문제는 체육 수업이 있는 날이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탈의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 학생들의 불만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협소하고 위생적인 문제가 우려되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 학생은 “화장실에서 갈아입는 것도 불편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아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런 제도를 정했는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학생회의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가 진정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 학교 측 입장

학교 측이나 학생회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편과 불만이 쌓이고 있는 만큼, 교복데이 시행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학생 의견 수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즐거움을 얻기 위해 따라야 할 의무감

-김서윤 기자

6월과 9월, 1학년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하던 수련회를 드디어 가게 된다! 수련회에 가게 되면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기대되지만, 그만큼 수련회동안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다. 첫째, 선생님 말씀과 인솔자의 안내를 잘 듣고, 수련활동을 할 때도 어디론가 이동할 때도 항상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둘째, 위험하거나 무모한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가끔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서로를 놀래키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장난은 자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여러 안전 수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준수해야만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우리 1학년은 이번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평 미리내 캠프